

가정불화가 낳은 끔찍한 패륜범죄

광주서 30대, 어머니와 화해 권유하다 뺨때린 아버지 살해

시신 유기 ... 죄책감에 자수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버린 '패륜'의 3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광주서 서구 광천동 A아파트에서 아버지(62)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집에서 직선 거리로 7km 떨어진 동구 서석동 C대하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조씨는 한 달 전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간 어머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자신을 꾸짖으며 손저짐을 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범행 후 집에 있던 대형 여행 가방에 시신을 옮겨 담은 뒤 이날 밤 9시께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이동, 시신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에게는 가방의 내용물을 헌책이라고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가족들이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행방을 궁금해하자 지난 25일 광주서부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태연함도 보였다.

조씨는 그러나 지난 26일 "아버지가 꿈에 계속 나온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한 달 전 아버지와 싸운 뒤 집을 나왔다.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C대하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조씨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택시기사 '수난시대'

만취 승객 "기사가 술 마셨다" 신고·욕설·행패

취객들을 상대하는 택시 기사들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택시기사의 음주 운전의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40여분 간 택시기사와 승객이 벌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여·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자정께 광주서 북구 용봉동에서 이모(6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상무지구 방향으로 가던 중 "택시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112에 2차례에 걸쳐 신고해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음주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측정을 요구하는 등 40여분 간 이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택시기사가 음주 운전한 것으로 오인,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부경찰은 또 같은 날 새벽 0시50분께 광주서 서구 쌍촌동 운전석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탑승, 여성 택시

기사에게 반말로 행선지를 말했다가 한 차례 말다툼을 벌인 뒤 목적지에 도착해 재차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박모(42)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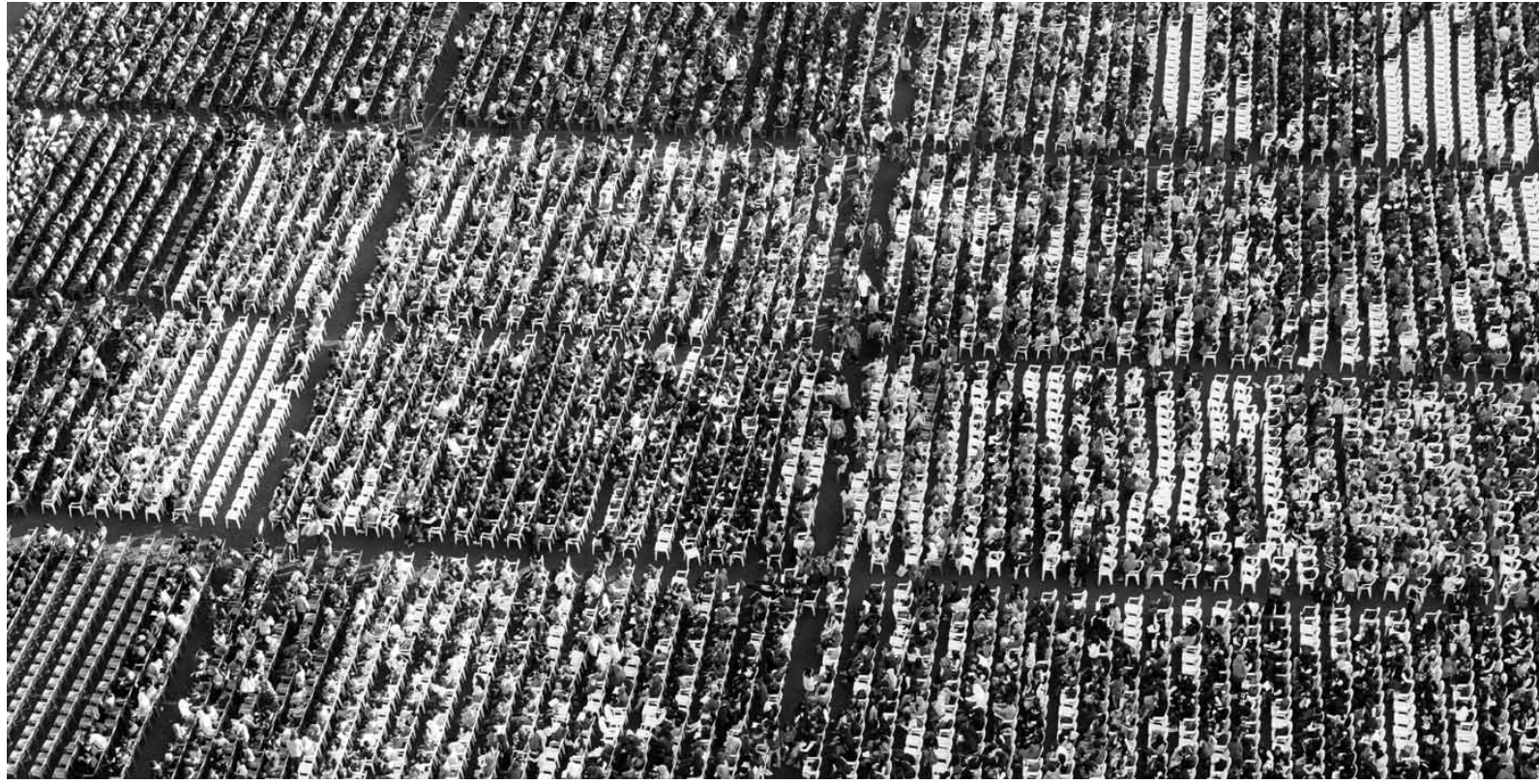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서구청 공무원 변사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광주서 서구 화정동 A 아파트 4층에 사는 광주시 서구청 세무 2과 소속 정모(59·6급)씨가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것을 직장 동료 신모(50)씨와 동행한 구급대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정씨는 용변을 보는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동료 신씨는 "정씨가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직접 찾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체내 세균 정수일로 업무량이 많았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대서 2만명 오키리나 합주

지난 25일 광주시 남구 광주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2회 남구민 오키리나 대합주'에 참석한 남구 지역 주민 2만여명이 오키리나 연주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모한 무등산 야간산행 ... 20대 女 2명 '큰일날 뻔'

새인봉 인근서 길 잃어 6시간만에 구조
이정표·산악위치 표지판 등 보완 시급

무등산 등산에 나선 20대 여성 2명이 등산로를 벗어난 무등산 동적골 인근 계곡에서 길을 잃은 지 6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찾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초행길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이정표·산악위치표지판 등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7일 광주동부경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모(여·22)씨와 조모(여·22)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무등산 새인봉 인근에서 가족에게 "무등산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동파 산책로 부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3시간 전 가벼운 체육복 차림으로 중심사에서 출발, 중머리재를 거쳐 새인봉으로 내려오던 중이었다. 가족들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연락이 이뤄지지 않자 동부경찰에 조난 신고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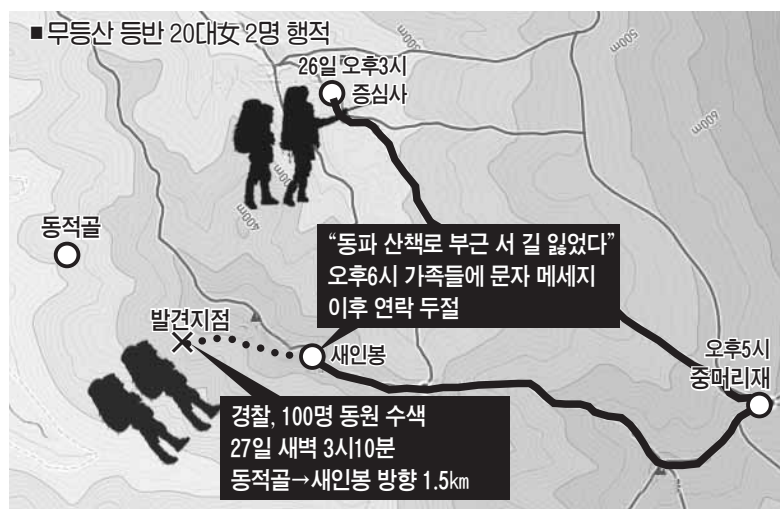
당시 김씨 등은 해가 지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 물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지자 지정된 등산로에서 벗어났고 인근 계곡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경찰은 경력 100명을 동원해 수색

에 나섰고, 조난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6시간만인 27일 새벽 3시께 무등산 동적골에서 새인봉 방향으로 1.5km 떨어진 계곡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뿐 아니라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초기 탐수 증세를 다소 보였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무등산을 찾는 초보 등산객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초보 등산객들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보완·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무등산 토기등·새인봉 등 지정 등산로의 경우 등산객들을 위한 종합안내표지판(5개)·공원구역안내표지판(19개)·이정표(82개)·산악위치표지판(22개) 등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안내표지판 글씨가 작고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경우도 많아 초행길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도 많다.

여기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통화 불량, 먹통 지역에 대한 실재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 김태근 계장은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고려해 산행을 계획해야 하며, 길을 잃을 때는 마지막 목적지와 이

동한 시간, 해의 방향 등을 경찰과 119 등에 신고하면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진도 외병도리에 산불 ... 해상순 4ha 태워

지난 26일 오후 3시 7분께 진도군 서소방장비 투입이 어렵고 바람이 강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불은 6시간째 계속되며 해상이 주류를 이룬 산림 약 4ha를 태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낚시꾼들이 불을 피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이 난 곳이 섬 지역이어서

소방장비 투입이 어렵고 바람이 강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불은 6시간째 계속되며 해상이 주류를 이룬 산림 약 4ha를 태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낚시꾼들이 불을 피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4원침 (9004)



박광태 전 시장 긴급조치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광태(70) 전 광주시장 이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차요금 시비 40대 남성의 '몽니'

○"무료이던 주차료를 유료로 전환한데 항의하는 표시로 요금 정산소 입구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량 60 여대의 통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매일동 산업용재 유통센터 요금정산소 출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량 60여대가 유통센터를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충동한 경찰의 지시로 차를 뺐 정씨는 "최근 요금 정산소가 생겨 유료로 전환했는데, 센터 입주자인 나한테도 주차요금을 받아 화가 났다"며 분통.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합판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여 0명
 - 홀서빙(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경력) 남 0명
 - 시설전 전기안전관리자(경력) 남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 급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무시험 국가자격증 장레지도사

교육생 모집

국비 지원 교육생 모집 | 실업자·재직자
계좌제 훈련(주·야간반)

100만원 (일 반) → **30만원 (계좌제)**

(계좌제 관련 석찬순 40명 / 상담을 통한 전액 국비 지원가능)
※교육이수만으로 국가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10월 31일(목)개강 주·야간 수시 모집중!

광주장레지도사 교육원 ☎ 062.223.7844 H. 010.9300.8245
광주시 북구 중흥동 683-14 (광주역에서 롯데백화점 가는길 500m 좌측)